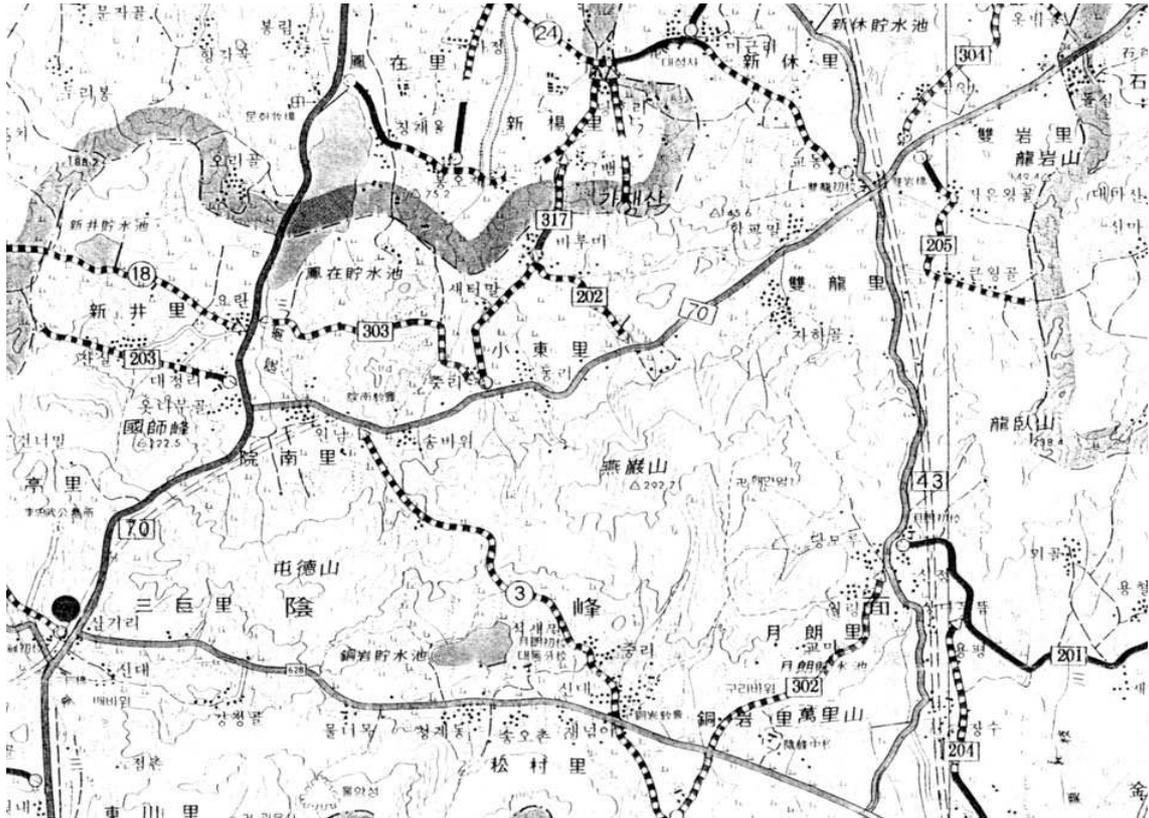


## 소동리·小東里

음봉면의 한 마을로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게는 동리, 바라미, 새터말, 송바위(송암), 중리의 다섯 마을로 나뉜다. 총 인구수는 460명이며, 호구수는 149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동리는 본래 아산군 이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발산리, 송암리, 동리, 중리를 병합하여 소동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소동리 위치도>



### ⊠ 동리, 중리, 송암리, 바라미(발산) 마을

소동1리(동리 마을)는 중리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며 소동리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다. 연암산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전, 답에 가뭄과 토질이 안좋아 들판에 소를 많이 매어 놓았던 유래로 소동으로 이름지어짐. 동리라는 유래는 소동2리 자연부락이름인 중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이름 지었다고 한다.

소동2리(중리, 송암리 마을)는 소동리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송바위와 원남리로 가는 원남고개가 있다. 원래 5동으로 되었었는데 송암,중리, 새터말, 바라미 동리, 그중 소동2리는 중리라 하였는데 마을 양쪽에 500년 넘는 큰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5동의 중심인 중리는 송암리와 통합하여 소동2리라 하였다. 송암리는 예전에 상사미에게 용숫말 까지 바닥에는 바위 땅위에는 소나무 숲이 너무 어우러져 송암이라고 불렀다 하며 현재는 소나무가 그다지 많지 않다.

소동3리(바라미, 발산 마을)은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뒷산이 뒷산이 바리모양이라 하여 바라미라 불리우고 있다. 음봉면 북서쪽 둔포면에 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암산 이 있고 뒤로는 야산이 삼태기처럼 둘러싸여 있어 농토가 적은 마을이다. 소동3리는 행정상 1980년 까지 소동2리에 속해 있다가 1981년 2월 소동3리로 분구되었다.

<조사당시 소동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이 마을은 위도 36-52-00, 경도 127-03-1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소재지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음봉 삼거리에서 약 2km 쯤 직진한 다음 70번 도로쪽으로 좌측에 위치해 있다.

중리 마을은 위도 36-52-00, 경도 127-02-5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소재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음봉삼거리에서 2km쯤 직진하다 70번 도로를 따라 버스로 10여분쯤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바라미(발산) 마을은 위도 36-52-30, 경도 127-03-1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약 4.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둔포면의신양리와 경계지역이기도 하다. 음봉삼거리에서 직진하여 70번 도로를 타고 가다 동리에서 내려 약 20여분쯤 걸어 들어간다.

2) 현 황

동리 인구수는 남자 63명, 여자 69명으로 총 132명이 살고 있고, 호구수는 41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다.

중리의 인구수는 총 197명이며 남자 93명 여자104명이다. 호구수는 70호로 66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분포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동리마을	132명	63명	69명
중리마을	197명	93명	104명
발산(바라미)마을	131명	75명	56명

- 생 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동리마을	100%	85%	15%
중리마을	100%	94%	6%
발산(바라미)마을	100%	95%	5%

농경지 면적은 세 마을 모두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동리마을	40ha	27ha	13ha
중리마을	41ha	29ha	12ha
발산(바라미)마을	41ha	28ha	13ha

- 영농기계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동리마을	22	12	29	30	3	3	3
중리마을	23	6	28	25	4	8	3
발산(바라미)마을	18	1	6	18	3	3	2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 앰프 1개, 농약기구(장고, 썰과리, 징, 북, 밭고등) 1조로 소동3개리 모두 구비 되어있다.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농약기구	방송시설
동리마을	1	1	1조	1
중리마을	1	1	1조	1
발산(바라미)마을	1	1	1조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0-80	81-
동리마을	10	23	12	13	19	20	31	3	2
중리마을	10	28	16	18	19	15	34	17	5
발산(바라미)마을	14	18	24	14	18	16	20	11	2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윤씨	조씨	장씨	기타
동리마을	17%	12%		10%	10%	51%
중리마을	12%	18%		9%	8%	64%
발산(바라미)마을	15%	17%	31%			38%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동리마을	8명	9명	4명	2명
중리마을	15명	6명	4명	3명
발산(바라미)마을	7명	3명	4명	4명

- 최고령자

동리마을은 92세의 조두호 할아버지, 중리마을은 90세의 조희선 할아버지, 발산마을은 81세 윤인원 할머니

- 호당평균소득

동리마을은 년/1,000만원, 중리마을은 년/1,000만원, 발산마을은 년/900만원

3) 자연 경관

동리는 먼저 도로 옆에 마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자연부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마을 뒤로는 새터말, 바라미와 연결되는 들이 있다.

중리에는 송바위가 있는데 솔이 울창하고 큰 바위가 있다는데서 유래되었으며 송바위가 원남을 연결해주는 원남고개가 있다. 가옥은 들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야산에 둘러싸여 있다. 바라미마을은 새터말과 둔포면의 신양리와 경계지역이며 가옥의분포는 대체로 야산 입구에 위치해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이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발산리, 송암리, 동리, 중리를 병합하여 소동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고 산 성씨는 김해 김씨이고 그 다음은 한양 조씨인데 지금은 후손들이 거의 없고, 다양한 성씨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성년대는 약 150년으로 알려져 있다.

중리 마을의 형성은 약 150년 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의 가구수는 약 30여호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70호로 소동리에서 가장 큰 부락이다.

6) 지 명

- 동 리 : 중리 동쪽에 있는 마을.
- 중 리 : 소동리 중앙에 있는 마을.
- 송바위 : 중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솔이 울창하고 큰 바위가 있음.
- 대동고개 : 중리에서 대동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
- 바라비 :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바리 모양이라 함.
- 새터말 : 동리 북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
- 요란고개 : 새터말에서 신정리로 가는 고개

- 원남고개 : 송바위에서 원남리로 가는 고개
- 잣골고개 : 동리에서 쌍용리로 가는 고개.
- 장재울 고개 : 중리에서 둔포면 봉재리로 넘어가는 고개.
- 소동 소류지 : 소동리에 있는 만수량 18천톤인 소류지.

## 7) 전설

### ·연암산

아주 오랜 옛날 음봉땅에 한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 산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녀를 고이미라 불렀다.

홀로 살아 외롭지만 아름답기 그지없다는 뜻이다.

고이미가 홀로 살게 된 것은 어릴적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은 까닭이었다. 그러한 고이미 이기에 자기 가족을 죽인 오랑캐에 대한 적개심은 말할 나위없이 불타올라 처녀이면서도 무술을 익히고 있었다. 밤에만 나타나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술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혹 하늘의 사자는 아닐런지!

그러던 중 다시 오랑캐가 침입을 했다. 그녀는 산으로 몸을 피했다. 서울에서는 유망한 장수를 뽑아 부랴부랴 올려 보냈지만 그들이 당도 했을때는 이미 오랑캐가 다녀간후였다.

군대는 계속 머물러 있었다. 고이미는 장수를 찾아가 군사로 받아 주기를 청했다. 따뜻한 환영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 장군은 고이미 자신보다 두어 살 많이 보이는 꽤기 왕성한 젊은이였다. 어느 사인가 고이미의 마음은 그 장수에게로 쏠리고 있었다. 거기에다 장수 또한 애국심에 도취된 그 여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변방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이 합일되려할 때 오랑캐가 또 다시 기세를 몰아오고 있었다. 혼인을 며칠 앞두고 어쩔수 없이 장수는 떠나 가야만 했다. 며칠 후 패전의 소식과 함께 한마리 말이 고이미 앞에서 울어대는 것이었다. 미처 사랑을 맺기도전 장수의 시체는 고이미 앞에서 말에 얹혀 있는 것이었다. 고이미는 그를 물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가슴이 저며오는 듯했다. 칼이 자신을 마구 자르는 것 같았다. 그날로 그녀는 비수를 지닌채 적의 막사로 숨어 들었다. 코를 골며 자는 적장, 그녀는 힘을 다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얼마가 지나고 그녀가 포승에 묶인 채 끌려와 있는 앞에 적장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엉뚱한 장수를 죽인 것이다. 고이미는 분했다. 서러웠다.

"신이여!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망나니가 칼을 놀리고 있을 때 갑자기 멈추라는 적장의 호령이 들렸다.

그날 밤 옥으로 적장이 찾아 왔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지 않겠소?"

비록 흐트러진 차림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초롱한 눈빛 속에는 적개심과 애국심으로 망나니의 칼앞에서도 태연할 수 있었다. 때문에 적장은 그녀를 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거절하는 그녀에게 다음날도 역시 적장이 같은 일을 가지고 찾아 왔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고이미는 순순히 응낙했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호사를 누리겠다는 것인지.....

적장이 방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자 그녀는 갑자기 적장의 칼을 들어 그의 가슴에 꽂았다. 하지만 그 순간 적장의 또 다른 칼이 그녀의 목에 와 닿고 있었다.

"요망한 계집 같으니!" 적장은 죽어갔다. 그리고 고이미도.....

얼마후 지도자가 없어진 오랑캐는 이미 오합지졸(烏合之卒)

우리 군의 사기에 오랑캐는 모두 물러가야 했다. 대승리였다.

처녀로 하여금 승리를 찾은 그들은 두 남녀를 합장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무덤에서 제비 한 쌍이 솟아 날아갔다. 제비가 멈춘 곳은 어느 높은 산의 넓은 바위였다.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의 바위 아무도 손대지 못할 그러한 곳이었다. 제비들은 그곳에 둥지를 지었다. 바위에 둥지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제비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승에 못 이루었던 사랑과 충정, 그들의 이상을 바위에 심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제비가 동우리를 지었던 이 바위를 연암이라 하며 그 산을 연암산이라 불리운다. 이것은 현재 음봉면 쌍용리에 있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 행사

우물제란 산신제를 지내는데, 우물은 마을끝 서쪽에 있고, 이 터에는 정자나무가 있다. 이제를 올리고 난 뒤 밤에 남몰래 제사상에 쓰인 떡을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은 한해 동안 운수가 대통하며 건강하게 보낼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 10) 종교 단체

성환성당소동공소 음봉면 소동리 113번지 회장 최민섭 천주교

천주교-소동교회 (190)

#### 11) 공장현황

- 우 성- 21-13번지, 허가일 90.2.21, 면적 16,146, 종업원수 13, 커피,팝콘
- 터 보 테 크-34-1번지, 허가일 90.9.8, 면적 7,145, 종업원수 64,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 중부 제관 공업-33-16, 허가일 98.7.4, 종업원수 13, 금속포장용기
- 대한 냉열 공업-33-1, 허가일 96.7.24, 면적 7,982 종업원수 53, 자동차부품
- 범일엔지니어링-소동 10-9, 허가일 97.4.11, 종업원수 35, 반도체제조장비
- 동원 금속 공업-12-3, 허가일 94.12.30, 면적 25,208, 종업원수 186, 머플러(소음기)제조
- 동 원 정 공-12-3, 허가일 95.4.7, 면적 7,987, 종업원수 226, 도어후레임
- 세 립 건 영-475-14, 허가일 98.1.20, 면적 8,512(미착공), 조립금속구조재
- 대 진-327, 허가일 90.6.21, 면적 29,717, 종업원수 86, 데코레이션 타일
- 대 진 산 업 사-소동 385-2, 허가일 94.10.19, 면적 1,554(휴업), PE필름
- 부 국 산 업-348-1, 허가일 95.8.1, 면적 23,583, 종업원수 25, 자동차부품

#### 12) 마을의 특성

소동리는 발산리, 송암리, 동리, 중리등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특히 중리에는 큰 느티나무 두 그루가 마을을 지키고 있어 아름다우면서도 위엄이 있는 모습이 매우 좋다.